
 국토교통부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2. 2. 22.(화) / 총 7매(본문3, 참고4)	
담당 부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	담당 자	• 과장 김혜원, 연구관 양효진, 주무관 정승균 • ☎ (031) 210-2790, 2765, 2766	
보 도 일 시	2022년 2월 23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3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지리정보원, 내달 4일부터 '긴급 공간정보 서비스'

- 국토정보플랫폼서 재난현장 영상 제공... 효과적인 재난 대응복구 기대 -

□ 국토지리정보원(원장 사공호상)은 대규모 산불 등 재난 발생 시, 위성·항공·드론 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장을 촬영하고 고정밀의 공간정보(지도, 국토 통계정보 등)와 함께 제공하는 '긴급 공간정보 서비스'를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.

-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 등 전국의 재난 대응 기관은 ①재난 현장을 촬영한 영상, ②지형, 지물(건물, 도로 등)의 정보를 담은 수치지도, ③과거 시계열 항공사진, ④국토 통계정보(인구, 주택 등)가 융·복합된 긴급 공간정보를 즉시 제공 받을 수 있고, 국토정보플랫폼* (<http://map.ngii.go.kr>)을 통해 가공·활용** 할 수 있다.

* (국토정보플랫폼) 수치지도, 항공사진, 위성영상 등 지리원에서 구축하는 모든 공간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

** (주요 기능) 재난 영상과 수치지도 간 중첩, 시계열 분석, 주제도 및 보고서 작성 등

- 긴급 공간정보는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난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, 피해 범위의 확산을 모의 예측하고 각종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지리원은 긴급 공간정보의 본격 서비스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,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업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.

○ '20년부터 대형재난*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여, 약 30여개 재난 대응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긴급 공간정보가 재난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 및 복구에 활용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,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았다.

* ('20년도) 안동산불(4월), 충북지역 풍수해(8월), 울릉도 항만피해(8월), 북한 원산 풍수해(9월) ('21년도) 안동산불(2월), 광양시 사면붕괴(7월), 포항시 도로유실(8월) 등

○ '긴급 공간정보 서비스' 제공에 관한 모든 과정을 '현장조치행동 매뉴얼'*로 작성해 일관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,

*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5에서 정의한 매뉴얼로,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
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'21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*에 선정되어 긴급 공간정보 제공에 필요한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고도화하였다.

* 최신 ICT 기술을 통해 국민 편의 제고,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고자, 공공 기관 대상 ICT 기반 서비스 혁신 과제를 공모, 관련 예산을 지원

** (과제명/예산/기간) 위성 기반의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, 12억원, '21.6월~12월

□ '긴급 공간정보 서비스'는 봄철 산불을 시작으로 풍수해, 산사태 등으로 확대되며, 본 서비스는 재난의 전(全) 주기(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)에 활용 가능하도록 '재난관리 공간정보'로 확대될 방침이다.

○ 특히, 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계열의 공간정보는 재난위험지구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재난의 예방과 대비에 활용이 가능하고,

- ‘재난관리 공간정보’는 중앙부처의 재난 위험성 평가 및 상황도 제작과 지자체의 재해지도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공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재난 대응 기관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효율적 재난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““긴급 공간정보 서비스’는 기존 주기적 갱신과 정확도 확보에 중점을 둔 국가 공간 정보를 우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계기” 라고 말하며,
- “재난 대응 기관이 긴급 공간정보와 향후 확대될 재난관리 공간 정보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, 지속적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 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양효진 연구관(☎ 031-210-27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

□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념

- (서비스 개념) 산불 등 재난상황 발생 시, 현장을 디지털 형태로 복원, 이를 관계기관에 신속(3일 이내) 배포하는 서비스



<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 >

- (데이터 형태) 지리원에서 구축, 관리 중인 과거 공간정보와 재난 상황을 위성/항공/드론 등으로 긴급 촬영한 영상정보가 융합된 데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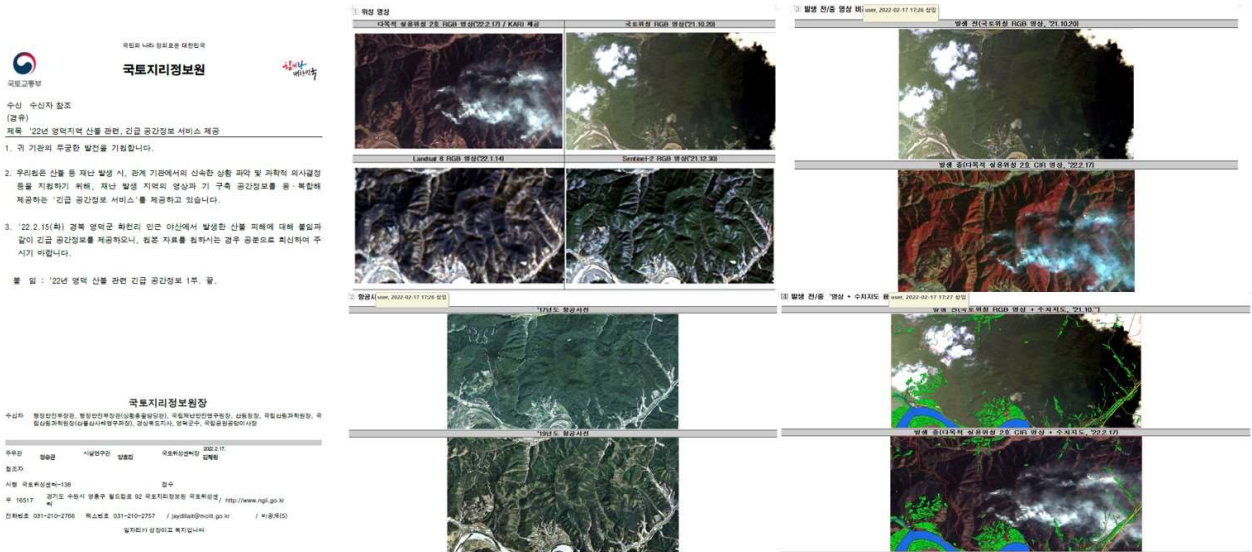


< 긴급 공간정보 데이터 개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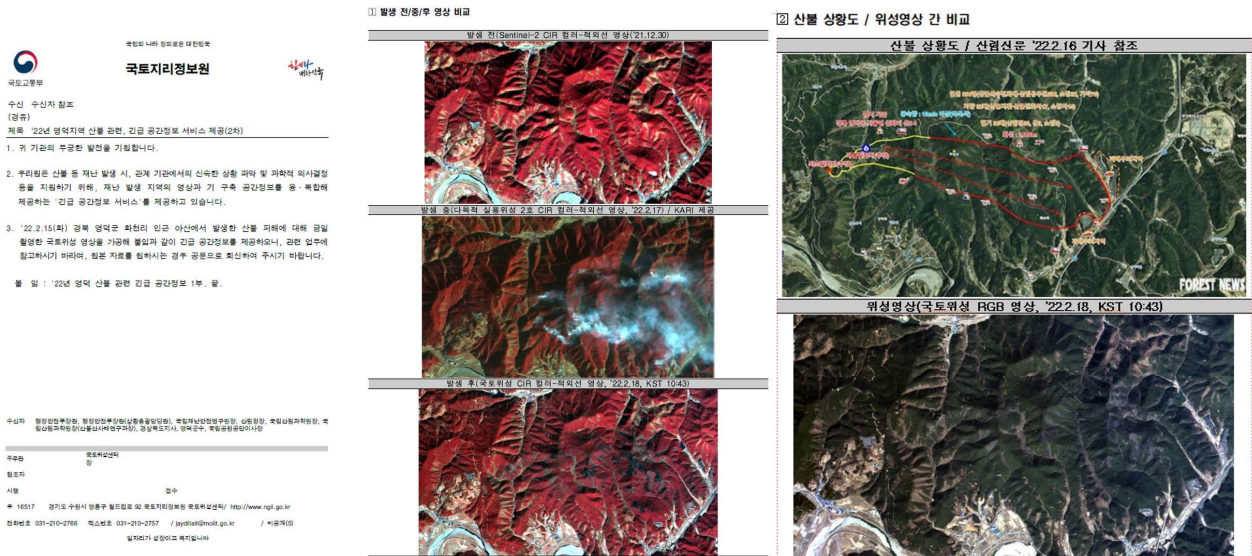
참고 2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사례

1 영덕 산불('22.2.15 발생)

- 산불 발생 전/중/후 위성영상을 신속 확보·처리, 산불 진화 1일 후에 해당 서비스를 관계기관에 신속 제공
- *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인근 야산에서 발생, 약 400ha 영향, 인명 피해는 없음
- ** 경위 : 발생('22.2.15), 위성 긴급 촬영(2.17 / 18), 서비스 제공(2.17 / 18)



< '22년도 영덕 산불 관련 긴급 공간정보 제공 사례 1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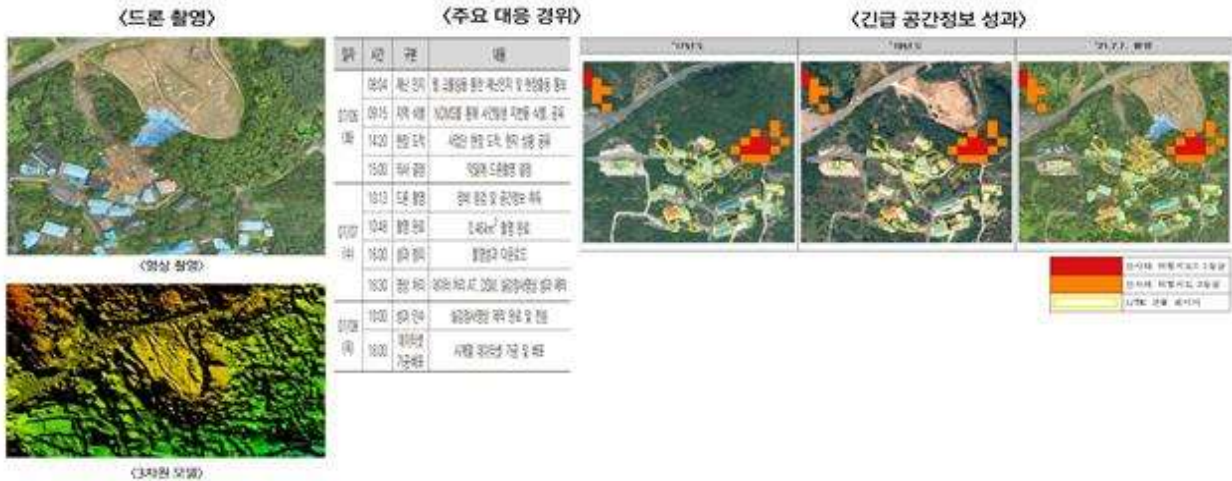
< '22년도 영덕 산불 관련 긴급 공간정보 제공 사례 2 >

② 광양시 사면붕괴('21.7월 발생)

○ 사면 붕괴 사고 1일 후, 드론으로 신속 촬영, 발생 2일 후에 해당 서비스를 관계기관·대국민에 신속 제공

* 집중호우로 광양시 진상면 야산에서 사면붕괴 사고 발생, 가옥 3채 매몰, 1명 사망

** 경위 : 발생('21.7.6. 05:50), 드론 긴급 촬영(7.7), 성과 가공 서비스 제공(7.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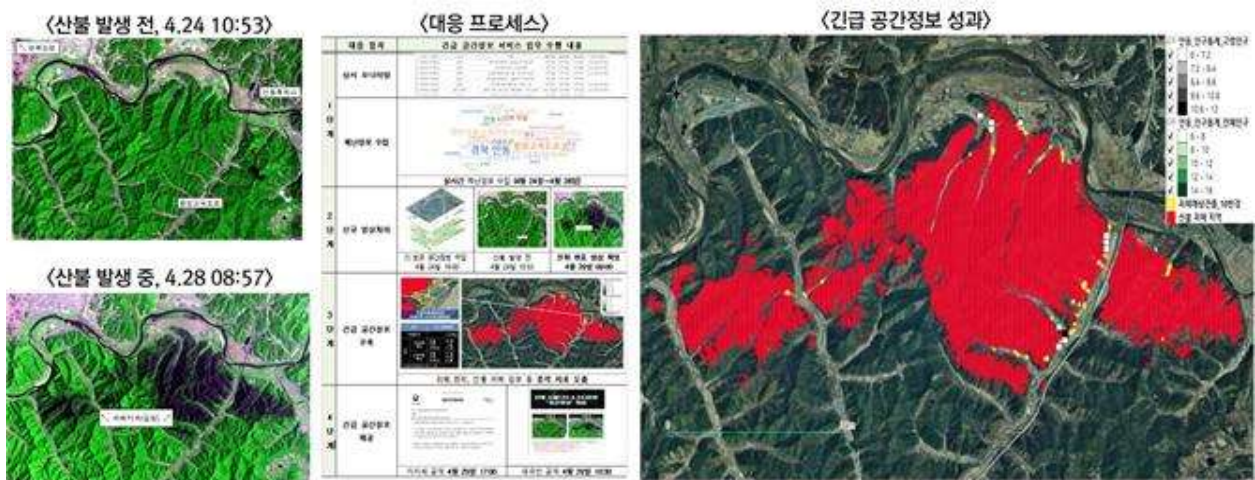
< '21년도 진상면 사면붕괴 관련 긴급 공간정보 시범 서비스 사례 >

③ 안동 산불('20.4월 발생)

○ 산불 발생 전/후 위성영상을 신속 확보, 산불 진화 1일 후에 해당 서비스를 관계기관·대국민에 신속 제공

*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근 야산에서 발생, 약 1,900ha 이상 면적이 소실된 산불

** 경위 : 발생('20.4.24.15:40), 진화(4.28.12:25), 서비스 제공(4.29, 19:00) 등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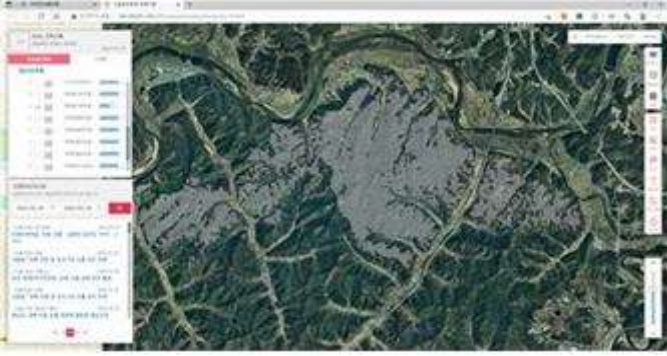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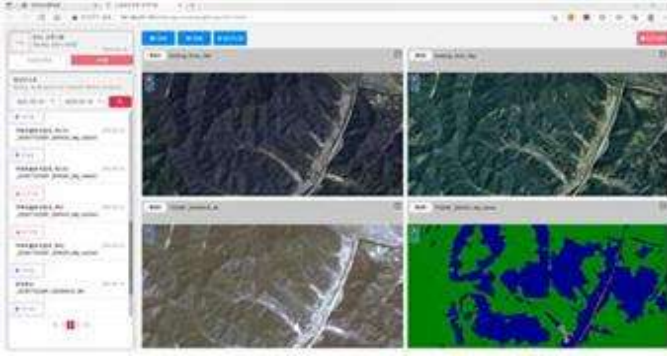



< '20년도 안동 산불 관련 긴급 공간정보 시범 서비스 사례 >

참고 3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이용 방법

□ 긴급 공간정보 온라인 서비스

- 국토정보플랫폼 접속 (<http://map.ngii.go.kr>), 긴급 공간정보 항목을 통해 재난 사례별 데이터 다운로드 및 맞춤형 지도제작 서비스 이용 가능

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화면	내용
	<p>① 긴급 공간정보 미리보기</p>
	<p>② 긴급공간정보 레이어를 단일 또는 중첩 지도보기</p>
	<p>③ 긴급공간정보 시계열 영상 서비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분할 영상 - 2분할 영상 - 슬라이드맵 영상
	<p>④ 긴급 공간정보 보고서 작성 및 다운로드</p>